

리턴매치서 6선 꺾어... 지역 유일 홍일점

광주 서구를 민주당 양향자

광주 서구를 선거구 양향자 당선자는 이번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여성 당선자다. 양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6선의 중진 의원인 천정배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인 끝에 전 의원을 꺾고 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화순 출신인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외부 인재 영입 7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자상업고등학교 출신 임원으로, 학벌·여성·출신 유리천장을 깬 '여성 고졸 신화'를 배경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양 당선자는 지난 20대 총선에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출마해 31.38%의 득표율을 기록, 54.52%를 얻은 전 의원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선거에 패배한 뒤 원외 인사로서 전당대회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겸 여성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자락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 당선자는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도전장을 냈지만, 본선에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같은해 8월 '국가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8월 사직,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전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해 활동했다.

양 당선자는 "강한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광주시민과 국민의 열망이라 생각한다. 저 또한 국민 기대와 믿음, 시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저를 영입할 때



호남, 여성, 기업 3가지 키워드를 말하면서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라고 하셨다"면서 "앞으로 호남, 여성, 기업 세 가지는 양향자가 확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인의 패기'로 3선 의원 물리쳐 이변

광주 동남갑 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윤영덕 국회의원 당선자는 첫 정치 도전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3선 현역 국회의원인 민생당 장병완 후보를 꺾는 기염을 토했다. 동남갑은 전통적인 정치 조직이 탄탄해 당내 경선에 4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경선과 본선 모두 치열한 승부였지만 윤 당선자는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며 '여의도행'을 확정 지었다.

특히 선거 막판, 장병완 후보가 서구를 천정배 후보와 함께 "호남 정권교체를 위해 마지막 총선에 출마한다"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윤 당선자와의 끈질긴 승부를 연출했다. 이처럼 장 후보가 수년 동안 쌓은 조직력이 강해 윤 당선자와의 박빙 승부가 예상됐지만 다선 의원의 관록도 '민

주당 바람'을 막지 못했다.

당내 경선도 뜨거웠다. 윤 당선자는 경선 초반, 재선 남구청장 출신의 최영호 예비후보를 비롯해 서정성·이정희 예비후보에 밀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4위에 그쳤다. 하지만 서정성·이정희 예비후보의 낙마 뒤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경선에서 최 예비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윤 당선자는 15일 "구시대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그리고 할 말 하고 일 잘하는 아무진 젊은 정치를 해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민의 기대에 맞게 지난 20여 년간 발전이 정체된 남구의 새로운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윤 당선자는 1988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당시 반민주적이었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네 변호사' 활동... 현역 무소속에 압승

순천·광양·곡성·구례를 민주당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서동용(55) 후보가 15일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출신의 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를 맡으며 정치권에 들어섰다. 당내 경선에서 권양엽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4·15 총선에서 현역 정인화 무소속 후보를 압도하고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서 후보는 이날 밤 당선 소감문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투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약

자에게 힘이 되는 법을 만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우대받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피해자 구제활동에서부터 여순사건 재심 재판까지 수년간 지역민들과 호흡하면서 동네 변호사로 활동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시절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처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특별 사면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전남 동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지, 광양항 환적항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섬진강 3대 뱃길 축제(매화·산수유·장



미) 연계한 남도 대표 축제 활성화, 농어민수당 중앙정부 지급 확대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재선 누르고 국회 재입성 '농업전문가'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당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김승남(53) 후보가 15일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의원 황주홍 후보를 꺾고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경쟁자인 황 후보가 3선 강진군수, 재선 국회의원이어서 박빙 승부가 점쳐졌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 당선자는 1987년 6월광명당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 인사다. 제19대 국회의원(고흥·보성)을 지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정치 공백 기간동안 광주 수완지구에서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밤 당선 소감문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들께서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고, 문재인정부를 굳건하

게 뒷받침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고품격화 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을 크게 변화시키려는 염원이 전제되면서 당선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를 확실하게 바꾸어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해 한없이 봉사하는 국회, 선진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전남 중남해안권을 관광허브로 조성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제 재 구축에 앞장서고,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구축,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제도화, 무역이득공유제



(FTA 수혜기업의 농어촌 상생기금 참여 의무화), 농어업 예산 비중 5% 이상 상향,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 인구 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등 농어촌 공약도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

'지금이 전북발전 골든타임... 달라질 것'

전북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민생당 정동영 후보를 꺾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은 15일 "전북은 분열의 정치와 결별을 선언했고, 정체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이제 전북은 하나 된 힘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선언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당선인은 "지금이야말로 전북발전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전북은 달라질 것"이라며 전주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전북은 분열의 정치와 결별을 선언했고 정체의 사슬을 끊어냈다. 이제 전북은 하나 된 힘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은 달라질 것이

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금융도시, 탄소·수소경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금융중심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전북발전의 골든타임이다. 지난 4년이 '잃어버린 4년'이라는 평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주는 생활체육과 복지, 의료가 결합한 건강 도시로,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며 "만경강과 덕진공원, 한옥마



음이 연계된 관광거점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4년 와신상담 끝에 재대결서 이겨

전북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전북 익산에 출마한 한병도(52)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선에 도전한 현역의원인 조배숙 민생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조 후보와 재대결을 벌였고, 4년 간의 와신상담 끝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 당선자는 지난 2004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갑에 출마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어 4년 전에는 전북 익산에 출마해 조배숙 의원에 패했다. 이후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

했다.

한 당선인은 "저에게 익산의 도약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익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힘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법안과 정책이 더 이상 정쟁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